

#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여성주의 상담적 분석 : 사례개념화를 중심으로

Feminist Counseling Analysis on Novel 『Kim Ji Young born 1982』  
: Focusing on Case Conceptualization

김 희 선 (Kim, HeeSun)

[이화여대 외래교수, 목회상담학]

---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이야기를 사례로 채택한 여성주의 상담이론에 근거해 작성한 사례개념화 구성과 목회 신학적 성찰에 관한 것이다.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정보를 기초로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이론에 비추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고 그에 따라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세우는 개념 형성 과정이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자가 사용하는 이론에 따라 접근과 방식을 달리한다. 여성주의 상담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과 제한을 벗어나 내담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젠더, 권력,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상담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상담이론적 관점에 따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다양한 억압의 사회적 맥락, 성역할, 권력과 문화의 관점에서 김지영을 분석하고 그 후 김지영의 역량강화의 방법을 모색한다. 내담자 김지영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목회 신학적 성찰로 연구자는 목회상담의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감과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영혼 돌봄의 경험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여성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제안한다.

## I. 들어가는 글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 조남주가 쓴 소설로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해 당시 34살의 전업주부로 딸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sup>1)</sup>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에게는 별로 새롭지 않은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성들 사이에 열풍을 몰고 왔다.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례를 슈퍼비전할 때 많은 경우 ‘상담자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개념화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이라는 것이 상담자가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때 제대로 된 사례개념화를 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사례개념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안타깝게도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례개념화의 모델을 보여주는 참고용 자료들이 많지 않다.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여 연구자는 특정한 사례를 찾아 여성주의 상담이론에 입각한 사례개념화의 모델을 작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왕이면 최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82년생 김지영』의 삶의 이야기, 여성이라면 많은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토대로 여성주의 상담이론에 근거한 사례개념화의 예를 구성할 것이다. 또한 이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느낄 수 있는 뭔가 허전한 아쉬운 감정, “그래서 김지영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함에 대해 간략하게 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주제로 인간성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목회 신학적 성찰로 응답한다.

---

1)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2016).

## II. 여성주의 상담

### 1. 여성주의 상담이란

여성주의 상담의 정의를 가장 간단히 표현하자면,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상담’이다.<sup>2)</sup> 가부장제 성차별 문제를 자각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철폐와 성 평등한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 여성주의의 철학이다. 따라서 성별에 근거한 차별과 제한을 벗어나 내담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젠더, 권력,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여성주의 상담이다. 여성주의 상담은, 성차별주의뿐만 아니라, 인종에 의한 차별, 신체나 나이에 의한 차별, 이성애주의 등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극복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상담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sup>3)</sup> 여성주의 상담이론은 여성의 억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정리하자면 여성주의 상담이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내담자인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담”이다.<sup>4)</sup>

2) 김민예숙 · 김혜경 · 배인숙,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파주: 한울, 2005), 14.

3) 정푸름은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로 여성이 아닌 다른 소수자들, 군대 내 폭력 경험자와 트랜스젠더 청년과의 상담을 통한 역량 강화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주의 상담이 여성만이 아닌, 차별을 경험하는 다른 소수자들과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푸름, “여성주의 상담자와 타젠터 내담자의 만남: 폭력과 트라우마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28(2017), 301-324.

4) 김민예숙의 정의인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역량을 강화를 조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상담”과 이미혜의 “여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성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내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주의 상담은 1960년 말 2세대 여성운동의 의식 향상 집단에 참여했던 서구 여성들이, 개인적이고 심리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도 고려하는 새로운 상담이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형성되었다. 한국의 여성주의 상담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들에 대한 상담이론으로 여성주의 상담을 선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5)</sup>

## 2.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들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캐럴린 저브 엔스(Carolyn Zerbe Enns)와 주디스 워렐과 파멜라 리머(Judith Worell & Pamela Remer)의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들이다.<sup>6)</sup> 중복되는 공통적인 원리도 있고 각자만의 강조점을 둔 원리들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위의 원리들을 토대로 ‘서울여성의 전화’ 기획팀이 구성한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를 적용한다.<sup>7)</sup>

### 1)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로 가장 먼저 꼽히는 이 논리는 여성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상담”을 연구자가 다시 정리하였다: 김민예숙, 『여성주의 상담: 구조화모델 워크북』 (파주: 한울, 2013), 14; 이미혜 · 김영자 · 문채수연, 『여성주의상담과 사례 슈퍼비전』 (서울: 학지사, 2012), 26.

5) 이미혜 외, 『여성주의상담과 사례 슈퍼비전』, 23-24.

6) 여러 이론가들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분류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세 책들을 참고하라: Carolyn Zerbe Enns, *Feminist Theories and Feminist Psychotherapies: Origins, Themes, and Variations* (NY: The Harrington Park Press, 1997); 주디스 워렐 · 파멜라 리머/김민예숙 · 강김문순 옮김,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파주:한울, 2015), 114-128; 김민예숙, 『여성주의 상담』.

7) 김민예숙 외,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154-171을 참고.

개인들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들의 심리적 불편감이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여성주의 상담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 2) 상담 관계에서의 평등성 추구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며 이 관계의 질이 상담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담 관계에서 여성주의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가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단기보다는 내담자의 삶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상담자는 상담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서 전문가이고 내담자는 자신의 삶의 최고 전문가임을 인정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바라보면서 상담 관계가 권력화 되지 않도록 내담자와 함께 상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함께 검토한다.

## 3) 역량강화

내담자가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지향하도록 돕는 것이 역량강화(empowerment)의 원리이다. 내담자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증상을 호소했던 것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자원/권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탐색하면서 내담자의 역량/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한다.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과 토론, 그리고 여성의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참여활동(교육, 직업훈련, 자원봉사 참여활동 등)도 촉진된다.

#### 4)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

여성주의 상담자는 내담자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성의 시각으로 자신의 세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억압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성의 경험으로 자신의 삶에 개인적·사회적인 측면과 사춘기, 결혼, 출산, 양육, 환경기 등 여성의 발달과정을 이야기하고 억압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경험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여성주의 상담의 기법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사회적 지위, 인종, 경제적 능력,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공통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식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상담기법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여성주의 상담만의 독특한 기법은 성역할 분석과 권력 분석(역량 분석)이다.

#### 1) 성역할 분석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여자와 남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성역할 개념은 특정한 문화에서 문화적으로 승인된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에 부여된 여성의 성역할을 할 당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출산과 양육이라는 성역할과 시대와 사회상에 따른 젠더(사회문화적으로 분류되는 성별) 역할을 부여받는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성별화된 고정관념은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언어적·비언어적 습관,

직업, 여가활동 등과 같이 광범위한 인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sup>8)</sup>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여성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여성주의상담은 내담자가 위와 같은 고정화된 성역할 규범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돕는다.

성역할 분석 기법은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생각, 느낌,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젠더 규칙들을 검증할 것을 촉진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주어졌고 기대되었던 성역할 메시지가 삶에 미친 영향을 인식해가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그 규칙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현재 삶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탐색하고, 그 주어진 성역할 메시지가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면 수정해나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sup>9)</sup> 성역할 분석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내담자에게 삶을 통해 경험한 직접적 · 간접적인 성역할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성역할 메시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살펴보고, 이 외부 메시지가 개인으로 내면화된 과정들을 탐색한다. 마지막 단계는 내면화된 메시지들 중 개인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sup>10)</sup>

## 2) 권력 분석(역량 분석)

권력(power)이라는 말이 낯설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능력(역량)이다.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여성주의상담에서 사용하는 권력에 대해 워렐과 리머는 “개인적이거나 외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 환경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sup>11)</sup>이라고 말하

8) 워렐 · 리머,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82.

9) 앞의 책, 84.

10) 앞의 책, 130-131.

11) 앞의 책, 131. 권력분석이라는 말이 power(힘/역량/권력)이라는 번역으로 인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글에서는 권력(역량)으로 함께 표기한다.

고, 김민예숙은 “내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역량의 소유”라고 정의한다.<sup>12)</sup> 즉 내담자가 현재 가진 능력(힘, 자원)을 분석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서 더 소유해야 할 힘과 자원을 탐색하여 그 힘을 강화하는 것(empowerment)이 권력 분석(역량 분석)기법의 이유이다.

여성주의 상담에서 권력 분석(역량 분석)의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 차이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을 높이고 내담자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관계적 · 제도적 외부에 대해 영향력을 갖도록 필요한 권력(역량)을 키움으로써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권력 분석(역량 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에 필요한 권력(역량)의 정의를 알려 준다.
- ② 내담자는 여러 종류의 권력(역량)에 대해 배운다.
- ③ 내담자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권력(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본다.
- ④ 내담자는 권력(역량)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배운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 ⑤ 내담자는 성역할 메시지와 제도화된 성차별주의가 권력(역량)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 ⑥ 내담자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역량) 사용을 시도해 자신의 권력(역량) 목록을 늘린다.<sup>13)</sup>

내담자가 소유할 수 있는 권력(역량/능력)의 종류는 크게 물질적(육체, 외모, 체력, 의식주, 재산 등), 심리적(역량, 소질, 성격, 지식, 대인 기술 등), 사회적(명예, 지위, 타인의 인정, 사회적 관계망 등) 권력으로 분류되

12) 김민예숙, 『여성주의 상담』, 27.

13) 앞의 책, 26-27. 위렐과 리머의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131의 서술내용을 김민예숙이 번호를 붙여 정리하였다.



며 내담자가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영적 권력 영역이 추가된다. 이렇게 먼저 권력(역량)의 종류를 살펴본 후 상담자와 내담자는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에 관련해 내담자의 권력 소유 여부를 탐색하고, 필요한 권력(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권력 강화(역량 강화)를 조력하는 이유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주체로서 살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내담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권력 분석(역량 분석)을 통해서 여성주의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권력과 권력(역량)사용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sup>14)</sup> 권력 분석(역량 분석) 기법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권력에 대해 알아본 후 내담자가 과거에 가지고 싶었던 권력,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역량), 미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권력들을 탐색하고, 원하는 힘을 가지려면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내담자가 대안적인 권력(역량)을 시도해보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

### III. 사례개념화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의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일련의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의 방향과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말한다.<sup>15)</sup>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 영어를 조금 풀어 말하자면 특정 사례(case)에 대해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어떤 이론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상담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상담자가 개념(concept)을

14) 앞의 책, 27-28.

15) 이윤주, 『상담사례개념화의 영역과 요소』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16.

잡는 것이라고도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상담 초기 체계적으로 작성한 사례개념화는 효과적인 상담에 매우 도움이 된다. 상담에서 사례개념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요인을 통해 탐색하기 때문에 사례 이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사례개념화는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 좌표의 기능을 한다. 사례개념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사례개념화는 상담자 자신의 상담이론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이론의 틀 안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례개념화는 상담이론과 실재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sup>16)</sup>

상담이론에 따라 사례개념화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각 이론의 사례개념화 요소 중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상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개념화 요소는 내담자의 현재 문제, 그 문제와 관련된 배경, 가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내담자의 강점 및 취약점, 상담계획과 예상되는 장애요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운주는 사례개념화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을 아래와 같이 추려서 정리하였다.

---

16) 이명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통합적 사례개념화 모형』 (서울: 학지사, 2017), 22-24.

1	내담자의 현재문제, 상태 및 관련 증상	지금 상담에 온 계기, 구체적 호소 증상, 핵심문제와 정서, 객관적 정보
2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발달적 역사, 문제의 기원, 과거 문제력 및 당시 환경 상황
3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내적요인	자아개념, 통찰내용과 수준, 인지적·정서적 스타일 및 특징, 신체·생리·행동적 특징, 원함(wants)
4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상황적 요인	문제와 관련된 현재 생활 여건,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황적 요인
5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대인관계 양상, 대인관계 문제영역
6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점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 강점과 약점, 대처 전략
7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종합적 이해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종합적 이해 및 평가
8	상담 목표 및 계획	단기목표와 최종(장기)목표, 상담전략, 예상 장애 요소

〈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sup>17)</sup>

사례개념화의 목적은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가정과 그에 맞춘 상담계획을 짜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sup>18)</sup> 따라서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 상담자가 도출해낸 이론적 설명과 이론에 입각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가설을 포함한다.

어떤 이는 “다른 상담도 이러한 전략을 다 세우는데 왜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특정이론으로 사례개념화를 해야 하는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질문에 응답하자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내면 탐색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담 전략에서 각기 다른 이론들의 공통점이 물론

17) 이윤주,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 요소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2001), 83-85.

18) 펠 버만/이윤주 옮김, 『사례개념화: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07), 7.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공통점 외에 각각의 이론들은 내담자 분석과 상담전략에 있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가 사례를 개념화할 때 어떠한 부분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상담계획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가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신역동적 접근이라면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무의식적 내적갈등과 내담자의 과거 경험을 연결해 사례를 이해하고, 인지이론으로는 문제를 유발시키는 내담자의 역기능적 신념과 사고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상담자가 하는 사례개념화는 전자는 무의식적 갈등을 다루고 후자는 인지적 왜곡을 다루는 방향으로 차이를 보이며 다르게 나아갈 것이다.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해서는 환경사, 자극과 반응에 관한 영향에 주목하여 수정되어야 할 특수한 행동이나 단기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sup>19)</sup> 아틀러 이론이라면 생활양식,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을 밝히려 할 것이고 해결중심적 이론이라면 내담자가 이전에 시도한 해결책들을 살펴볼 것이다.<sup>20)</sup>

동일한 내담자의 문제 관련 정보를 가지고 개념화를 해도, 상담자의 이론에 따라 개념화의 색깔이 확연히 달라진다. 여성주의 상담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일반상담의 사례개념화는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심리 내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또한 이 사회의 다중적인 억압과 차별에 대한 비판 없이 내담자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 때문에 가부장제를 살아가는 여성이 처한 독특한 상황적인 맥락을 간과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 상담이론으로 구성한 사례개념화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의 다각적인 내담자 이해와 성역할 분석과 권력(역량) 분석, 상담 목표 및 역량 강화의

19) 이운주, 『상담사례개념화의 영역과 요소』, 16.

20) 렌 스페리 · 조나단 스페리/이명우 옮김,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14), 58-59.

전략 등을 여성주의 상담 원리에 입각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상담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상담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화 요소를 공유하되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 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자신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례를 개념화함으로써 서로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sup>21)</sup> 이러한 가정 하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여성주의 상담이론으로 조명한 내담자 김지영의 사례개념화를 구상하였다.

## IV. 김지영에 대한 사례개념화

### 1. 내담자 이해

#### 1) 호소문제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별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 2) 기본정보

- 김지영 (여, 1982년생, 전업주부)
- 위로 언니 아래로 남동생 삼 남매 중 둘째. 서울 소재 대학 인문학 부를 졸업하고 홍보대행사에 다니다 2012년 결혼했다. 2014년 딸 정지원 출산 후 퇴사하여 현재 전업주부로 육아에 매진하고 있다.
- IT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편(정대현, 41세)은 매일 밤 12시가 되어야 가까스로 퇴근하며 주말에도 하루 정도 출근한다. 시가는 부산이고 친정은 식당 운영을 하는 이유로 내담자 혼자 살림과 육아를 하는 상황이다.

21) 이명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43.

- 서울 근교 24평 아파트 전세 거주. 현재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 3) 현재 문제와 상담경위

김지영은 2015년 9월 8일 처음으로 이상 증상을 보였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평소 쓰지 않는 말투를 썼다. 살아있는 사람(김지영의 어머니)이기도 했고, 죽은 사람(동아리 여자 선배)이기도 했는데, 모두 김지영 씨 주변의 여자였다. 평소 하지 않는 요리도 하고 잘 때는 딸아이처럼 엄지를 빨고 자기도 했다. 남편 정대현이 먼저 정신과를 찾아 아내의 증상에 대해 상담한 후 아내를 안내했다. 정신과 의사는 해리장애, 산후우울증과 육아 우울증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일단은 당장의 우울감과 불면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하면서 상담과 병행할 것을 권유했다. 김지영 씨는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남편은 아내가 평소 잠을 잘 못 자고 힘들어 보이니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고 김지영 씨도 동의하였다.

## 2. 내담자의 삶의 자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에는 유독 당시 상황에 대한 통계가 많이 등장한다. 출생부터 2014년까지 그녀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서 내담자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김지영이 태어난 1980년대는 정부에서 ‘가족계획’ 산아제한 정책을 펼칠 때였다. 성감별과 여아 낙태의 결과 1990년대 초, 셋째 아이의 성비는 남아가 여아의 두 배를 넘었다. 김지영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한 반 인원이 50명에 달했고 한 학년에 10개 반이 넘었다. 중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 현상을 보았다.

김지영이 고등학교 시절은 ‘여자라고 못 할 것이 없다’는 사회적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1999년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고 2001년 여성부가 출범했다. 1990년대 말, 호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김지영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2014년 기혼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결혼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 전후로 현저히 낮아진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여성이 일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꼽혔다.

이렇게 소설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김지영이 살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은 갑질 공화국, 수저 계급론, 여성 혐오 담론과 폭력, 비정규직, 1인 가족시대, 빈곤, 고령화,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저출산, 아동학대, Me too운동과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취업난으로 인해 포기 항목 1순위로 미혼 남성은 ‘결혼’을, 미혼 여성은 ‘출산’을 꼽았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김지영처럼 출산 후 직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혼여성 10명 가운데 2명은 경력단절 여성이고,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비율이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과 같은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34.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22)</sup>

정리하자면 김지영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1999년 여성차별 금지법 제정, 2001년 여성부 신설, 2008년 호주제 폐지 등 점진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 육아휴직제도 비율, 남녀 임금격차,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률 등과 같은 수치로 볼 때 성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사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출산과 양육 때

22)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7915](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7915).

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업주부와 경단녀라는 삶의 현실이' 맘충'이라는 여성 혐오적인 문화와 만나면서 김지영은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잃게 되었다. 이것이 30대 여성 김지영이 처한 사회문화적 현실이고 그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 연구자의 분석이다.

### 3. 성역할 분석

김지영은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규범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정, 학교와 사회에서 습득했다. 김지영은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할머니와 살면서 언니와 자신보다 남동생이 특별대우를 받는 집안 환경에서 가끔 억울하다고 느끼면서 자라났다.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만 복장 규정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바바리맨을 비롯한 일상생활 속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되었다. 고등학생 지영이 같은 학원을 다니는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아버지는 지영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며 몸가짐 단정히 하라고 하며 지영을 오히려 혼냈다. 대학교 3학년 때 동아리 엠티에서 남자 선배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영을 두고 "찹다 버린 껌"에 비유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취업 준비를 할 즈음 대학의 학과에서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라며 취업 추천 후보로 남학생들을 추천하였고, 면접 때 "거래처 상사가 신체 접촉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취직한 김지영은 아침마다 커피를 타고 식당에서는 수저를 세팅하고 빈 그릇을 정리했다. 어느 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팀장이 김지영에게 앞으로 그런 일을 '알아서'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김지영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업무에서 남성 동기들에게 밀리거나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산을 앞두고 김지영과 남편 정대현은 출산 후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결국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



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남편 직장이 더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고 또 그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김지영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남편은 자신이 살림과 육아를 많이 돕겠다고 말했고 김지영은 그 ‘돕는다’라는 말에 괜히 화가 났다. 전업주부가 되어 육아에 전념하면서 지영은 ‘살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느꼈다. 때로는 ‘집에서 논다’라며 무시하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김지영이 사는 현 한국 사회는 김지영의 어머니가 살던 세대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교묘한 차별에 직면해있다. ‘여자도 뭐든 할 수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하라’는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대학 졸업했고 별문제 없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김지영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서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된다. 김지영은 여성으로서 제한되고 억울한 일도 겪었고, 동시에 여성으로서 그 차별을 맞서고 규칙을 바꾸는 여성들도 목격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과 살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찬양을 들으며 동시에 남편 돈 쓰면서 집에서 놀고 먹는 맘충이라는 모욕도 받는다. 때로 상충하는 다양한 시선들 속에서 김지영은 미로 한가운데 선 것 같은 기분, 성실하고 차분하게 출구를 찾고 있는데 애초부터 출구가 없는 억울한 기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느낌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여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성역할 메시지를 모두 경험한 김지영은 때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차별에 저항하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여성들이 되고 때로는 딸아이처럼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고 잠을 자는 퇴행 행동을 통해 막막한 자신의 현실을 표현한다.

#### 4. 권력 분석(역량 분석)

김지영이 현재 소유한 권력(힘/능력)을 살펴보자면 먼저, 김지영은 한국 사회에서 신체적 장애가 없는 젊은 30대 여성이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이성애자이다. 서울 근교 24평형 전셋집이라는 재산도 있다. 현재는 전업주부로서 사회적인 부분의 권력(역량)이 약화되어 무력함을 느끼는 상태이다.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여성주의상담에서 사용하는 권력을 “내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역량의 소유”라고 정의할 때 김지영은 그녀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역량으로서의 권력을 현재는 충분히 소유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대학생과 직장인 김지영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권력이 있었다. 대학생 김지영은 많은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또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부모님 집에 살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가 구해준 과외 아르바이트만 하면 되는 자신의 대학생활이 ‘매우 운택한 편’ 이었다고 말했다. 홍보대행사의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의 상징인 아이디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던 김지영은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맛있는 것뿐 아니라 가방도, 옷도, 지갑도 사주고 가끔 택시비도 줄 수 있었다. 가부장제에서는 많은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적은 권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교육과 취업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20대인 지영이 비슷한 또래인 남자친구보다 사회적 경제적인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진다 해도 삶의 어느 부분에서 다시 권력 약화를 경험하게 되기 쉽다. 김지영의 경우 가정주부 육아를 담당하면서 여러 차원에서의 권력 약화를 경험한다.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남편 혼자 회사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상태이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동료와 친구와 같은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힘도 약화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전업주부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 속에서 억울하고 불편해하다가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으로 낮에 커피나 사 마시고 있는 맘충, 한국 여성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라는 혐오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듣고도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급히 일어나 공원을 나올 만큼 위축되어있다. 또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무력한 상황에 처해있다.

## 5. 상담목표와 계획: 역량강화

앞서 살펴본 김지영의 삶의 자리, 성역할과 권력(역량)을 토대로 내담자 김지영에 대한 상담계획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다.

- 1) 상담목표: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아픔의 이야기하기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회복과 자기주장 능력 강화하기  
주도적인 여성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방향 모색하기  
새로운 관계 맺기
- 2) 상담전략: 지지적 경청과 공감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역량강화하기
- 3) 상담계획: 상담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내담자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해가면서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담자와 함께 탐색한다.

## V. 김지영의 역량 강화에 대한 목회 신학적 성찰

목회상담자란 이야기의 청취자요, 이야기의 해석자이다.

사람들이 목회상담자를 찾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sup>23)</sup>

—찰스 거킨(Charles V. Gerkin)

---

23) Charles V.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26.

## 1. 혐오의 대상인 맘충에서 온전한 인간성 회복: 다른 사람이 아닌 김지영의 목소리로

그동안 김지영은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불편해질까 봐 대부분 입을 닫아버리곤 했다.<sup>24)</sup> 입을 다물어버리고, 괜찮다고 말하고, 겉으로 드러내어 말하고 싶었지만 참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켜왔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의 어려움과 아픔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다가 공원에서 누군가에게 ‘맘충’이라는 혐오적인 시선과 말을 듣게 되면서 인간성의 파괴를 경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된다. 김지영은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신분석학 관점은 인간성 파괴의 심리학적 원인을 개인의 내면 탐색에서 시작한다. 정신병리의 원인은 인간성 상실로 인해 개인의 심리세계가 분열된 것이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다. 전통적 방식의 상담은 김지영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병리적 현상을 제거하는데 상담의 주요 목적을 둘 것이고 이것 역시 회복의 방식으로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에 연구자도 동의한다. 다만, 내담자의 증상 완화나, 내담자를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전통 상담의 주요 목표라면 여성주의 모델은 내담자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량 강화와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은 내담자의 병리적 현상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변화의 초점은 내담자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내면화한 신념들을 교정하고 재구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 즉 김지영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과 강인함의 씨앗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량 강화 방법으로 첫째,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인 김지영 안에 존재하는 저항의 목소리들을 통합하여 자신의

24)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183-184.

목소리로 만들어어나가는 과정에서 성역할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것과 둘째,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진로계획을 구체화함으로 권력(역량) 강화에 대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아왔던 내담자 김지영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가부장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저항한 여성의 목소리들이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김지영의 삶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있다. 초등학생 김지영이 선생님께 오해로 혼날 위기에 처했을 때 실내화를 던진 아이가 김지영이 아니라고 말해준 친구, 급식 먹는 순서 바꾸자고 건의한 유나. 중학교 때 남녀의 복장 차별을 항의한 친구, 바바리맨을 잡은 친구들, 버스 안에서 남자에게 위협을 당하는 고등학생 김지영을 도와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던 이름 모를 여성, 직장 내 성희롱에 저항한 여성 동료들과 김은실 팀장 같은 여성들이다. 김지영의 내면에는 가부장제를 사는 여성들에게 부여된 고정된 성역할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들도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현재 김지영의 삶에 불쑥불쑥 등장하는 두 명의 여성이다. 첫 번째는 김지영의 3년 선배이면서 남편 정대현의 동기인 차승연이다. 대학시절 차승연은 동아리에서 “여학생 특별대우 필요 없으니 일도 똑같이 기회도 똑같이 달라”라며 여학생의 회장을 기원하던 당찬 선배였다.<sup>25)</sup> 대학 졸업한 후에도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으나 그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했고 그즈음 산후우울증을 겪던 김지영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힘들어했다. 밤 12시가 되어야 피곤에 절어 귀가하는 남편 정대현에게 차마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김지영의 마음속 목소리는 차승연이 되어 남편에게 전달된다.

---

25) 앞의 책, 91.

요즘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저 때가 몸은 조금씩 편해지는데 마음  
이 많이 조금해지는 때거든. 잘한다. 고생한다. 고맙다 자주 말  
해줘.<sup>26)</sup>

나머지 한 명은 김지영의 엄마 오미숙이다. 김지영의 삶에는 자신은  
오빠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했고 전업주부가 되  
어 딸들을 키우는 동안 딸들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해주  
던 엄마 오미숙의 영향이 있다. 엄마는 자매를 위한 방을 따로 꾸며주고  
커다란 세계지도를 붙여주며 딸들을 응원해주었다. 명절 때 시댁에서 일  
하는 며느리 김지영의 삼켜진 속 이야기는 장모님이자 사부인인 어머니  
오미숙을 통해 표현된다.

아이고 사부인, 사실 우리 지영이 명절마다 몸살이에요.  
정서방, 자네는 연휴 내내 부산에만 있다가 처가에는 엉덩이 한 번  
붙였다 그냥 가고, 이번에는 좀 일찍 와 ...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삼 남매도 명절 아  
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게 다 그렇  
죠. 그 덕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 주셔야죠.<sup>27)</sup>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살던 김지영은 잠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지영 씨가 무능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듯,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달리는 것도 일에 열정이 없어  
서가 아니다.<sup>28)</sup> 말을 해도 상황을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졌기 때문에 점

26) 앞의 책, 12.

27) 앞의 책, 17-18.

28) 앞의 책, 145.

점 목소리를 잃어갔으며 가끔 다른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었다.

한 여성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인간성의 파괴에 대해서 목회신학은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 김지영의 삶의 이야기에 대한 목회 신학적 성찰 중 한 가지는, 목회신학이 개인의 분열된 인간성 회복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목회상담의 목표는 영혼 돌봄(cure of souls)이며, 상담자의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신체 질병으로 치자면 몸에 열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안톤 보이슨(Anton Boisen)은 정신질환을 영혼이 아픈 것(sickness of the souls)로 말했다. 영혼이 아픈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데 책이나 이론(documents)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병원의 사람들,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 자체(living human documents)가 오롯이 직접적인 돌봄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29)</sup> 영혼돌봄의 목표는 곧 신뢰 관계 속에서 공감과 경청으로 한 개인의 상처 입은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지영의 종교 유무는 소설에 언급되지 않지만, 목회신학적 입장에서 보는 인간성 회복의 길은 영혼을 돌보는 목회상담자와의 충분한 공감 경험을 통한 자기 회복을 들 수 있다.<sup>30)</sup> 이야기심리학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자서전적 진술을 통해 삶을 하나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소설 김지영의 이야기 구성은 이미 김지영의 생애사적 사건들을 기초로 서술되어있다. 개인의 인생의

29)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38.

30) 김지영의 경우는 소설에 종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목회신학과 연결하기 어려우나 내담자가 교회여성인 경우 여성주의 목회상담을 접목한 사례개념화가 가능하다. 정희성은 교회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사례개념화의 한 예로 신앙공동체의 목회신학을 반영하여 ‘춤추고 노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학에 근거한 사례개념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음을 참고하라. 정희성, “여성주의 목회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평가 모델,” 『목회와 상담』 26(2016), 361-392.

전체적인 스토리는 상담 관계 속에서 함께 탐색, 해석, 재해석되면서 필요하다면 편집과 재편집작업을 거친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인생이야기는 투명한 절대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그녀가 이해하고 정리한 인지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거킨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아오는 이유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고, 내담자가 의미를 부여한 이야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즉, 김지영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위로받고 이해받는 공감적 경청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녀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믿고, 김지영이 자신의 경험을 이름 짓도록 돕는 과정은 그 자체로 그녀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여성주의 목회신학자 크리스티 코자드 뉴거(Christe Cozad Neuger)는 여성들을 상담할 때 이야기심리학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내담자의 이야기 안에 그녀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진 채, 한 개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재구조화하고, 다시 상상하고, 다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기에 뉴거는 여성을 상담할 때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31)</sup> 내담자의 회복을 위해 상담자가 함께 있어주면서(*be present with*) 그녀 스스로의 언어를 찾는 과정을 함께 한다. 여성주의 목회상담자인 브리타 질 어스턴(Brita Gill-Austern)은 목회상담가의 돌봄의 이미지들 중 하나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보이스코치(*voice coach*)”를 소개했다. 여성주의 이론은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

31) 뉴거는 이야기 재구성의 다섯가지 단계를 5R를 이용하여 1) 기억하기(*Remembering*) 2) 재구조화(*Reframing*) 3) 번복(*Reversing*) 4) 재상상(*Re-imagination*) 5)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ing*)의 과정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크리스티 코자드 뉴거/정석환 옮김,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한들, 2002), 221-228.



강조한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을 느낀다. 어스틴은 가부장제 속에서 ‘착한 여성(good girl)’이 되기 위해서, 혹은 남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청소년기부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성인 여성이 되어간다고 말한다. 목소리를 상실했다는 것이 주체성과 진정한 자기의 상실을 의미한다면, 보이스 코치는 한 여성이 안전한 공간에서 진실을 말하고(speaking up/speaking out) 자신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돕는다. 잃어버린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다시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She must learn again to speak)”고 어스틴은 강조한다.<sup>32)</sup>

김지영의 삶의 이야기 말하기, 경청과 그 이야기의 해석을 통해 내담자 김지영의 ‘영혼의 이야기’가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을까? 만약 상담을 통해 김지영이 공감과 존중 경험을 통해 힘을 얻어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그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부서진 이야기들이 새로 통합되고 김지영 안에 분열된 목소리들과 가부장제에 저항하라고 지지했던 그녀 삶의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통합되어 더 이상 타인들의 목소리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김지영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고립된 개인에서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와 연결되기

목회상담가의 진정한 목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sup>33)</sup>

-크리스티 뉴거(Christe Cozad Neuger)

32) Brita Gill-Austern, “The midwife, Storyteller, and Reticent Outlaw,” in *Images of Pastoral Care: Classic Reading*, ed., Dykstra R.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05), 221-222.

33) 뉴거,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285.

김지영은 2014년 출산을 앞두고 첫 직장을 그만두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세상에 큰 목소리를 내는 일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만들어 내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었다고 했다. 주어진 일을 해내고 진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자신의 수입으로 자기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이 보람되었다.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는데 딸 지원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나니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김지영은 현실 가능한 조건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 일한다는 제한된 조건의 지영 씨가 시작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시급 5600원 아르바이트마저 그나마 주저하다가 놓치게 되었다. 엄마라는 정체성에 압도되어, 개인적인 관계들이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정 안에 갇힌 느낌을 받으며 김지영은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지게 된 것처럼 보인다. 김지영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가부장제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워렐과 리머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요약했다: 1) 자신에 대한 차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소극적 수용(Passive Acceptance); 2) 개인적 차별과 상실의 경험으로 여성주의 관념과 만나게 되면서 억압을 깨닫는 눈뜸(Revelation); 3) 여성주의 문화 안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늘려가는 새겨둠(Embeddedness-Emanation); 4) 유연하고 긍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에 이르러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종합(Synthesis); 5)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Active Commitment)라는 다섯 단계<sup>34)</sup>로 볼 때 연구자는 김지영의 상

34) 워렐과 리머는 낸시 다우닝과 크리스틴 루시(Nancy E. Downing and Kristin L. Roush)가 정의한 흑인정체성 발달의 단계들을 요약, 인용하며 5단계를 소개하였다. 김민예숙과 강김문순이 옮긴 워렐과 리머의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는 3단계의 Embeddedness-Emanation가 “빠져있음-빠져나옴”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태를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2단계 정도라고 추측한다. 김지영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2단계와 3단계 과정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고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을 만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변화를 북돋는 일이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여성주의 심리상담가 미리암 그린스팬(Miriam Greenspan)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앉아서 들으며 고통스러웠던 체험을 나누는 단순한 과정은 매우 강력한 치료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몸, 일, 성, 남성과 여성, 아이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성들이 사용해왔던 정책, 관계, 성, 힘, 언어 등의 낡은 용어들은 남성들의 경험의 결과이며, 여성인 우리들만의 시각에서 재창조되어야 할 언어들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느낀 당혹감은 이처럼 새롭게 우리 자신만의 시각으로 이 세계를 보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다.<sup>35)</sup>

여성주의 상담과 목회신학이 만나는 부분은 이러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 개인의 회복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고 강조하는 점이다. 김지영이 종교 유무는 소설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교회를 치유의 장으로 가정할 수 없지만, 목회신학 역시 파괴된 인간성의 회복의 방법으로 공동체성의 회복을 강조한다. 목회상담이 내담자가 보다 유기적으로 공동체 속에

---

여성들과의 만남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가부장적인 삶으로 빠져나오는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점차 새 인격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본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애매함때문에 “새겨둠”으로 수정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김민예숙 외,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100. 또한 이러한 정체성 발달 단계는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진했다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과정이다.

35) 미리암 그린스팬/고석주 옮김,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5), 233.

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며 의미 있는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돌봄의 목표로 한다면, 보다 넓은 뜻으로의 공동체 속에서의 회복과 연결이라는 강조점은 김지영의 회복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목회상담의 장이,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더 넓은 사회라고 볼 때 치유적 기능을 가진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뉴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여성과 일하는 목회상담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불건전한 적응 문화 속에서 대항적 이야기를 찾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 공식적, 비 공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지그룹, 의식개혁그룹, 현실검증 그룹,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교회 모임, 교우 관계 등의 힘은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그룹들 속에서 대항할 수 있고 여성들의 선택들이 검증되고 평가될 수 있다.<sup>36)</sup>

뉴거는 가부장제 사회와 교회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적 치유의 과정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여성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여성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둘째,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된 것을 정교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셋째, 그간의 작업을 바탕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 마지막은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 상태에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sup>37)</sup>

36) 뉴거,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283.

37) 앞의 책, 343-346. 또한 신명숙은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를 위한 목회신학적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1) 기억하고 증언하기 2) 자존감 형성을 통한 자기소리 내기 3) 권력 남용으로부터 정의 회복하기-공동체적 연대책임 4) 영성 회복하기. 신명숙, “목회자의 성적부정행위로 희생된 여성치유를 위한 목회신학적 고찰,” 『목회와 상담』 30(2018), 131-143을 참고.

출산과 육아로 자신의 삶이 잠시 정지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여성은 김지영 씨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가는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과의 지지 집단 모임에의 참여를 권유할 것이다. 집단 나눔을 통해 그녀만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덜 갖게 될 것이고 함께 공동육아와 같은 방법들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방안들과 나아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추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김지영 씨와 함께 현실 가능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지영 씨는 홍보대행사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현실적으로 공채를 통해 기자가 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자신이 프리랜서 기자나 자유기고가가 될 수 있겠다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지영 씨는 관련 교육 수업을 알아보았으나 모두 저녁시간이어서 부담을 느끼던 차였다. 상담과 여성들의 지지 모임에서 받은 공감과 지지, 격려에 탄력을 받는다면 김지영은 용기를 내어 저녁시간 수업을 신청하고, 필요할 때마다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덜어내며 조금씩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속에서 한 개인의 인간성이 파괴되었지만 또한 그 공동체 속에서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는 것이다.<sup>38)</sup>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의 목회상담자는 분열과 상실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는 자이다. 상담자와의

---

38) 고유식은 인간성 회복의 방법으로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 개념을 소개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느끼는 동질감과 응집력이 그 공동체 일원들에게 편안함, 위로, 소속감을 제공하며 그것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상호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조한다. 디아코니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로서의 책임과 자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돌봄의 교환이 일어난다. 디아코니아를 통한 영혼 돌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타자를 돌봄과 자신을 돌보는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타자를 위한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타자에게 유익이 되고 개인 역시 이를 통해 자기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고유식, “왜곡된 공동체성으로 인해 상처입은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영혼 돌봄 연구,” 『신학과 실천』 54 (2017), 306-308.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또한 이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공동체 속에서 김지영은 돌봄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다.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가부장제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무기력과 의미 없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회복은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회복할 때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는 희망을 배우는 현장이 되고 희망을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떠민다.<sup>39)</sup> 희망은 미래 지향적이다. 딸 지원에게는 여성에게 다양한 기회와 선택을 제공하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면 김지영은 자신과 비슷한 삶의 자리에 처한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 속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로 포기했던 자신의 꿈들을 다른 모습으로 다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 VI. 나가는 글

많은 여성들이 추천한다는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을 처음 읽었을 때, 예상처럼 특별히 독특한 내용이나 반전이 없어서 책을 덮을 때 당황스러웠다. 소설 김지영 열풍으로 곧 영화도 제작된다던데 이 흔한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제목이 김지영인 것은 1982년에 태어난 여성의 이름 중 가장 많은 것이 김지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설의 제목처럼 이 소설은 1980년대 여성들 그리고 40대 여성들과 20대 여성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의 딸이 살아갈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기

---

39) 앤드류 레스터/신현복 옮김, 『희망의 목회상담』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161.

위해 이 소설의 작가는 신중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김지영에게 정당한 보상과 응원 그리고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이미 여성들이 많이 알고 있는 김지영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주의상담 이론에 기초한 사례개념화를 구성하였다. 전통적 방식의 상담은 김지영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병리적 현상을 제거하는데 상담의 주요 목적을 둘 것이다. 내담자의 증상 완화나,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상담의 강조점이라면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역량 강화와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은 내담자의 병리적 현상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진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의 삶의 내적 외적 요인을 인식하고 장애가 되는 조건에 도전할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김지영의 이야기에 대한 목회 상담적 성찰로 상담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제안했다. 어려운 일이지만, 목회상담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사회가 불공평하고 억울해서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충분히 돌보아 주고, 이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불공평한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김지영과 같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30대 혹은 40대 교회여성들에 대한 사례로 여성주의 목회상담이론에 기초한 사례개념화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82년생 김지영』의 ‘미친 것 같은’ 증상은 병리의 지표가 아니라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반응이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자 자기를 대변해줄 만한 분열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 애처롭고 아슬아슬하게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 후 김지영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까? 연구자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와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상담을 통해 이해받고 삶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개발시키며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자란’ ‘다른’

‘억울한’ ‘미친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어딘가 내 주위에 살고 있을 것 같은 김지영 씨, 그녀의 삶을 응원한다.

| 주제어 |

소설 82년생 김지영, 여성주의 상담, 사례개념화 모델, 인간성 회복

Kim Ji Young born 1982, Feminist Counseling Theory,  
Case Conceptualization, The Restoration of Humanity.

• 논문투고일: 2019년 3월 15일

• 논문심사일: 2019년 4월 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6일



## 【 참고문헌 】

- 고유식. “왜곡된 공동체성으로 인해 상처입은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영혼 돌봄 연구.” 『신학과 실천』 54(2017), 285-314.
- 김민예숙. 『여성주의 상담, 구조화모델 워크북』. 파주: 한울, 2013.
- 김민예숙 · 김혜경 · 배인숙.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파주: 한울, 2005.
- 그린스펜, 미리암/고석주 옮김.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5.
- 뉴거, 크리스티 코자드/정석환 옮김.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한들, 2002.
- 레스터, 앤드류/신현복 옮김. 『희망의 목회상담』.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버만, 펄/이윤주 옮김. 『사례개념화: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07.
- 스페리, 렌 · 조나단 스페리/이명우 옮김.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14.
- 신명숙. “목회자의 성적부정행위로 희생된 여성치유를 위한 목회신학적 고찰.” 『목회와 상담』 30(2018), 107-149. DOI : 10.23905/kspcc.30..201805.004.
- 워렐, 주디스 · 파멜라 리머/김민예숙 · 강김문순 옮김.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파주:한울, 2015.
- 이명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통합적 사례개념화 모형』. 서울: 학지사, 2017.
- 이미혜 · 김영자 · 문채수연. 『여성주의상담과 사례 슈퍼비전』. 서울: 학지사, 2012.
- 이윤주. 『상담사례개념화의 영역과 요소』. 파주:한국학술정보, 2007.
- .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슈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 요소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2001), 79-93.
- 정푸름. “여성주의 상담자와 타젠터 내담자의 만남: 폭력과 트라우마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28(2017), 301-324. DOI : 10.23905/kspcc.28..201705.011.

- 정희성. “여성주의 목회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평가모델.” 『목회와 상담』 26(2016), 361–392. DOI : 10.23905/kspcc.26..201605.012.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2016.
-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7915](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7915).
- Enns, Carolyn Zerbe. *Feminist theories and Feminist Psychotherapies: Origins, Themes and Variations*. NY: haworth Press, 1997.
- Gerkin, Charles V.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Gill–Austern, Brita L. “The midwife, Storyteller, and Reticent Outlaw.” In *Images of Pastoral Care: Classic Reading*. Edited by Dykstra R.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05.

Feminist Counseling Analysis on Novel  
『Kim Ji Young born 1982』  
: Focusing on Case Conceptualization

Kim, HeeSun  
Instructor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introduces the case conceptualization based on feminist counseling theory by adapting the story of the novel, 『Kim Jiyoung born 1982』. Case conceptualization refers to a process in which a counselor establishes counseling strategies and goals for a client by utilizing both her own counseling theories and the client's information. Case conceptualization produces different counseling goal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particular set of theories used by the therapist.

Feminist counseling theory aims to minimize the role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its limitations in the counseling process by equipping the therapist with the analytical lens of gender, power, and culture. Feminist counseling theory seeks to strengthen the clients' innate abilities to better navigate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ir unique social context.

In this article, I use feminist counseling theory to analyze 『Kim Jiyoung』 by addressing the various forms of oppression that women face in society. Next, as a part of the pastoral theological reflection of the client Kim Ji-young, I explore the ways Kim may experience empowerment. I suggest that Kim's process of healing will require the following two elements: 1) the recovery of her humanity through encounters of empathy and respect; 2) restoration of her sense of belonging through positive experiences of community, in particular communality fostered among women.